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8240遊擊隊 출신 發明企業人

(株)진영월드 姜 亨 權 회장



〈姜 亨 權 회장〉

8240遊擊隊출신 發明企業人 (株)진영월드 姜亨權회장.

38년전 6.25戰爭속에서 임태한 아이디어가 드디어 發明으로 연결되어 發明企業人 姜회장을 誕生시켰다. 어느 사이 중노의 姜회장. 그는 6월이 오면 먼저간 동지들에 대한 죄스럼에 밤잠을 못이룬다.

그래서 發明한 것이 多目的시트 및 그 셸트와 多目的작업복이다.

姜회장이 위 세가지 發明을 결심한 것은 1950년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요. 저희 8240遊擊隊는 愛國靑年들을 중심으로 甞치된 非正規軍으로 장비라

곤 배 몇척이 고작이었는데 적의 습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지요. 이때 수많은 동지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동지들은 드림통·파편이 된 배의 조각·조가집 문짝등을 타고 후퇴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凍死하였지요.』

이에따라 물에 뜨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장비의 發明을 결심했으나 적당한 素材를 찾지 못해 그만 38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말하는 姜회장. 그는 그날의 惡夢이 피살아 나는듯 눈을 지긋이 감으며 두주먹을 불끈 쥐곤 했다.

姜회장이 發明한 多目的시트와 그 셸트는 텐트·침낭·물위 침대·담요·가방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多目的 작업복은 점으면 구멍조끼가 되고 퍼면 등산복·스키복·구멍복·작업복등으로 사용할수 있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위 發明品들의 素材인 石油化學製品는 저렴한 生産價로 대량 生産할 수 있으며, 3백g으로 1백30kg의 物體를 물위에 띄울수 있는

때, 空氣와 무관하여 素材가 찢어지고 구멍이 나더라도 浮力에는 관계가 없으며, 防寒효과 또한 크다.

이에따라 軍장비의 改善, 즉 防寒服으로서 軍작전시 渡江用 장비에 이용되게 되었다는 것.

『중래의 浮力材는 두껍고, 유연성이 없으며, 착용및 운반이 不便했지요』

이같은 問題點을 모두 해결한 素材를 찾았, 이 素材를 이용한 發明을 위해 38년의 세월과 1억원이 넘는 研究費를 投入해야 했다는 姜회장의 설명. 姜회장은 이 發明과정에서 尤사품이 나돌아 크게 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자신의 發明品生産을 위한 (株)진영월드를 설립했고, 지난해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入賞한데 이어 올해는 뉴욕 國際發明展 准대상과 제네바 國際發明展 은상을 受賞하여 世界的인 發明企業人으로 浮上하기에 이르렀다.

이외함께 캐나다·美國·구라파·東南亞시장에도 販路가 開拓되었다. <8>